

동북아역사재단 출범식 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학계와 시민사회 지도자 여러분께도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에서도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동북아역사재단 출범은 역사적으로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존중하는 역사를 보면, 과거사로 머물러 있는 역사도 있고 오늘의 현실 속에 갈등으로 결합돼 있는 역사도 있습니다. 역사의 해석과 역사 문제에 대한 정리와 처리를 놓고 간간이 정치적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감정적 행동이 표출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사가 정치화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그저 과거의 사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실이 오늘의 의미로 살아 있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길을 제시하는 지침으로서의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 문제가 정치화하고 감정화하고 갈등요소가 되는 것도 자연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부닥치는 어려움은 정치적 협상이나 싸움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국민정서로서 감정을 표출하는 것으로는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합리적으로 정리하거나 해결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동북아에서 이전의 변방의 역사를 청산하고 극복해서 당당하게 동북아 역사를 주도하는 일원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해야 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계 정세가 한국만이 우뚝 서서 과거의 모든 수모를 다 극복하고 멋진 한을 풀고 한국이 좌지우지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용납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평화와 공존, 그리고 공동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할 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북아만은 그 문제에 있어서 뒤쳐져 있습니다. 가끔 유럽에 갈 때마다 한없이 부러운 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질서가 부럽고, 심지어 우리보다 개발이 좀 늦은 것으로 인식하는 아프리카에 가서도 공동체 논의가 동북아 지역보다 앞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현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처지가 부끄럽고 딱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앞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 나가야 됩니다. 지난날처럼 중국이나 일본에 맡겨 놓고 따라갈 수만은 없는 문제이고, 우리가 한발 앞장서서 새로운 질서를 주장하고 제안해서 힘을 합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되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봐서 동북아의 정치가 유럽만큼 성숙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과거 역사를 다루는 자세가 유럽과는 차이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유럽은 제국주의 상호간에 싸움을 하긴 했지만 긴 역사 동안 장기간에 걸쳐 식민 지배를 받았던 국

가들은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아에는 제국주의 식민 지배를 했던 국가와 지배를 받고 온갖 고통을 겪었던 국가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유럽보다 역사문제를 풀기가 훨씬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다 과거의 역사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유럽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치적 성숙성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있어서의 차이도 있지만 정치적 성숙성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이 역사에 대한 다른 태도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 공동의 역사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역사를 함께 가르치는 수준에까지 와 있고, 역사 문제가 두 나라의 협력관계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주독일 한국 대사가 프랑스와 독일도 역사공동교재를 만들었다는 보고서와 함께 그 책을 제게 보내왔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합의되지 않은 역사적 사실의 인식에 관해서는 각기 다른 주장을 나란히 실어 놓았습니다. 주장이 서로 다르다는 점만이라도 함께 가르치는 그와 같은 합의를 한 것입니다. 적어도 두 나라 역사를 함께 인식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노력이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진지한 노력을 통해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정치적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없습니다. 협상은 할 수 있으나 사실을 바꿀 수는 없는 문제이고 정치적 협상이 학술적 활동을 구속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만으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감정적 대립이란 것은 끊임없이 감정적 대결을 증폭시켜 나갈 뿐이지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합리적 문제 해결에 지장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성숙한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역사는 객관적 사실에서 출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매우 엄숙한 것입니다. 사실을 탐구하고 또 사실에 관해 인식이 서로 다른 부분은 진실을 밝혀서 인식을 하나로 합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진실을 존중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치가가 나서는 것보다는 오히려 학문하시는 분들이 좀더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정치하는 사람입니다만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목적이 사실에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의 취사선택에 있어서도 정치적 목적을 항상 고려하게 돼 있습니다. 학문하는 분들은 그 점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것입니다. 또 정치하는 사람이 하는 일에는 정치적 시비가 항상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학문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그와 같은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더 객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문적 접근을 통해서 역사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갈등을 풀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고구려역사재단의 설립 목적이었고, 또한 그것을 뛰어넘어서 동북아 전체를 연구해 보자고 하는 것이 동북아역사재단의 출범 목적입니다.

우리가 한·일관계, 한·중관계, 중·일관계를 보면 각각의 관계가 전체의 관계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전체를 사고하면서 각자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과 따로 따로 3각의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같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자의 관계가 서로를 견제하고 분열을 이용하는 관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됩니다. 따라서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한·중·일 관계를 기본적으로 하나의 틀로서 함께 풀어 나가려는 시각을 가지고 외교를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유사한 관점에서 학술적인 문제에 대한 것도 3국이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인식을 갖고 가려는 노력을 해 나가면 한·일의 공동연구, 한·중의 공동연구가 따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좀더 많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중 간에 고구려사 문제를 놓고 연구와 토론, 때로는 논쟁도 필요하고, 또 한·일 간에

도 이러한 것이 필요하겠지만 한·중·일 3국을 묶어 역사 인식을 함께하는 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동북아역사재단은 고구려역사재단에서 한 단계 발전한 형태의 목표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구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를 따로 갖고 있는 것은 의미가 적을 것입니다. 3국 간의 연구결과를 공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객관적 진실을 추구해 나가되 함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또는 설사 역사 인식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다 할지라도 현실과 관련된 많은 문제에 있어서 각국 간 이익이 따로 있고 갈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세 나라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고 나아가서는 주변의 다른 나라,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은 외교 마당에 나가서, 예를 들면 유럽에 나가서 한·일 역사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과 전혀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난날 역사의 결과로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양국 간 갈등관계라든지 영토 문제에 대한 갈등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역사인식이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게 돼 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결과에 만족하거나 거기까지가 자기가 할 일로 생각하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아무리 사실을 들고 나가서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 설득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 잘못 기록돼 있는 문건들이 정치인들이 뜯어고칠 수 있는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서 연구하는 사람 또는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많은 자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정치적 발언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거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민·관이 함께

적절히 협력하면서 역할을 나눠 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을 해 보자는 것이 동북아역사재단의 또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역할에 더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 외에 개별 학자나 학교, 연구기관 등 많은 곳에서 역사를 연구하고 있지만 그 같은 노력을 조직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연구한 성과를 가지고,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잘못된 역사적 기록들을 바로잡고 세계적으로 공인을 받아 나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역사재단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히 만족할 만큼 갖춰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열심히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해 보다가 역량이 부족하다 싶으면 역량을 보충하고, 다른 영역에서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협력을 받고,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해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재단이 하는 일을 우리 국민들이 잘 이해하고 성원해 주실 수 있도록 함께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신뢰를 받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모습만큼 신뢰가 높아질 것이고 성과만큼 역량이 커질 것입니다. 노력해서 큰 역량을 갖추시고 큰 성과를 내주십시오. 그래서 과거의 한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고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한·중·일 국민 모두가 미래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인식의 토대를 만들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데 밑거름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